

환난의 때 선생을 통한 답

작성일 : 2012. 2. 24 (금) 천성운 때

작성자 : 정수영 (월명동교회, 석막 담당)

(천국성령운동 때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자 준비할 때 너무도 애가 타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.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리며 간절히 주님을 느끼고자 간구할 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.)

* 성자 예수님 말씀 *

넌 내 손만 너에게 닿았으면 좋겠느냐.
내 몸과 네 몸, 네 맘과 내 마음이
온전히 일체 되길 원하느냐.
난 최고 정상에 올라와 있다.
넌 온전히 만나려면 최고 정상까지 올라와야 한다.
내 손만 닿는 정도의 계시를 원하느냐.
나의 모든 것까지 네게 보이고
나와 온전히 일체 된 단계에서
넌 만나길 원하느냐.

네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
나 있는 정상까지 올라야 한다.
높고 높은 나 예수가 있는 정상까지 오르고 올라라.
네 선생과 같이 삶의 최고봉,

그 마음과 정성을 나 예수의 마음과 같이 같고 닮아
온전함으로 나 예수의 마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.

부흥강사와 네 선생이 표상이다.
그와 같이 하는 자 날 만나리라.
진정 나의 때 휴거되리라.
내가 너희에게 모두 보여 주었노라.
네 선생을 본 자는 곧 나 예수를 본 자이다.

부흥강사를 본 자, 곧 네 선생을 본 자이다.
진정 알아라.
이때를 놓치면 안 돼.
이때 놓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
그 때는 이미 내가 떠난 이후이다.
정녕 알고 행하여라.
너희의 무지의 정신,
삶의 모든 틀을 깨고
진정 나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.

사랑하는 신부야,
외줄타기 하는 고수(高手)를 보았느냐.
지금은 세상도 옆도 뒤도 보지 말고
오직 외줄 타기 하듯
진리의 줄 위에 너희 자신을 근신하며
절대 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
온 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 예수를 붙들 때다.
나의 말씀을 붙들 때다.

이때가 얼마나 급한 때이나.
무지의 사탄은 너희를 안일하게 한다.
너희를 나태하게 한다.
너희를 다른 여러 가지로 나를 잊게 한다.

깨어나라, 신부야!
내 사랑들아, 깨어나라!
내가 너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은
나 예수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코자
재림할 그때까지 쉬지 않고
애타게 간절히 외치노라.
나의 간절함이
너희 마음 가운데 쉬지 않길 원하노라.

내 사랑 신부야,
내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 한 명도 없구나.
진리의 이 길만을 가야 할 때다.
너희 앞에 표상된 선생, 난 오직 그에게만 역사한다.

아무리 세상 모진 바람 불어와도
난 그에게만 역사하니
너희 흐트러진 마음을 나 예수에게,
선생에게 집중하고 모으라.
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하고
사랑의 불을 태워라.
진실로 너희의 믿음을 보일 때다.

내가 선생 통해
너희가 당할 시험의 모든 답을 주었다.
답을 주는 것은
곧 시험의 때가 오기 때문이다.
이젠 그 동안의 너희의 모든 공력으로
시험의 때 굳건히 승리할 자를 찾을 것이다.
내가 믿음의 답, 사랑의 답,
너희 인생 가운데 처하는 모든 답을 주었다.
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는 자 있느냐.

선생을 보아라.
선생이 답이며 그에게서 나가는
나의 모든 말씀이 답이다.
믿음의 시험은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.
사랑의 시험은 너희가 절대 날 100% 사랑치 못할 때
그 시험이 온다.
믿음의 답은 절대 믿는 것이며
사랑의 답은 절대 100% 사랑하는 것이니라.
너희를 혼드는 그 모든 순간에도
날 100% 믿고, 100% 사랑할 수 있는 자
진정 마지막 때 나의 모든 시험을
환난의 때 이기게 된다.
나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
그와 같이 실천하고 행하는 자,
진정 나의 신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.
사랑한다.

내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
사도 요한을 통해 이름같이,
7개의 교회에게 이름같이 각 모든 교회는
그와 같이 굳건해져야 할 때이다.
사랑한다.
기도와 찬양과 말씀이
끊이지 않는 나의 신부들이 되어라.

(감사하며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.)

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가
생명을 얻을 수 있고
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는 자가
나의 모든 사랑을 얻게 된다.
내 심정을 갓길 원하느냐.
내 심장을 갓길 원하느냐.
네 것을 내게 다오.

네 심장도, 너의 사랑도, 너의 인생도
너의 모든 것, 내게 다오.
난 이미 네게 물과 피도 내 사랑도
나의 것, 모든 것 아낌없이 쏟아 주었노라.
하늘의 내 보좌까지 버리고
너희에게로 왔노라.
너의 사랑 갖고자
너의 모든 것 나의 사랑으로 만들고자
너에게 왔노라.

진정 너의 모든 사랑도,
너의 모든 마음도 내게 다오.
내 사랑아.